

광주서 5년간 폐사 수달 13마리 중 9마리 로드킬 당했다

교통 사고 지점, 수달 사는 영산강·광주천·황룡강 주변 광주 수달 서식지·개체수 현황 조사와 보호 조치 전무

광주 도심에서 지난 5년간 폐사한 수달 13마리 중 9마리가 영산강·광주천 주변에서 교통사고(일명 로드킬·Road-kill)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 현황 조사와 사고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문화재청·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수달 폐사 사례는 1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0건이다.

폐사 원인은 교통사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상 2건,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의 탈진 1건, 원인 불명 1건이 뒤를 이었다.

폐사 지역은 광산구 6곳, 서구 3곳, 북구 2곳, 남·동구 각 1곳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영산강·광주천·황룡강 등 하천이다. 물줄기를 따라 강기슭에 사는 수달의 생활 특성과 일치한다.

특히 영산강과 풍영정천 합류 지점(어둠

대교) 주변에서 수달 3마리가 매년 1마리씩 차에 밟혀 죽었다.

광주천(상부교·금교)과 광산구 광산동·오산동을 가로지르는 황룡강에서도 각 2마리가 로드킬을 당했다. 서구 영산강 서창교 주변 도로에서도 2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보호종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도 수달을 물 환경 건강도를 판단하는 지표종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엔 광주천에서 사냥하는 수달들이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달 서식지·개체수 현황이나 보호 조치는 없다.

지난 2012년 광주천 동·식물 '자연생태계 조사'에서 수달 서식·배설물이 제2수원지~영산강 합류지점 19.5km까지 3개로 나뉜 모든 구간에서 확인됐지만 이후 현황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발표했지만, 포유류는 산림을 중심으로만 관찰했다.

광주천 산책로·진입로 12곳엔 '야생생물 알람'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수달 폐사 지점에 설치된 보호 안내판은 없다.

대구·서울은 수달 보호를 위해 한국연구 수달센터에 용역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단체는 수달 보호 대책 마련과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계자는 "구

조된 수달들이 대부분 교통사고를 당해 숨만 붙어 있거나 죽은 상태"라며 "강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사람 손을 타 구조될 정도면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수달 폐사 집계와 환경 조성 업무가 이원화돼 지속적인 수달 보호·관리가 안 된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만 일시적인 용역 조사만 하고, 환경 변화상 현황과 대책 수립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수달 생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태 통로와 방지턱·표지판 설치 등 속도 저감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올해 수달 현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새학기 준비하기 위해 붐비는 시장

새학기를 앞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에서 학용품을 고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7년까지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5% 줄인다

소방 당국이 오는 2027년까지 영유아(만 0~5세) 생활안전사고를 2022년 대비 5%를 줄이기로 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저감 대책'을 최근 수립해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 대책은 5개년(2023~2027년) 계획으로 아이 키우기에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발생률을 매년 1%씩 5년간 총 5% 저감하는 게 골자다.

영유아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영유아 발달 단계별 생활안전사고 원인 등의 정보 분석·제공이 부재했던 데다 보호자·보육교사·유아 등 교육 대상자별 전문교육도 미흡했었다.

영유아 생활안전사고로는 넘어짐·부딪힘, 떨어짐, 기도 이물, 화상, 손발 끼임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2만 건 안팎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집계 중이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2021년의 1만6327건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 게 소방청 측 추산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를 보면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영유아의 비(非)의도적 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2.6명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평균 8.8명보다 3.8명 많다.

소방청 관계자는 "영유아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저감 목표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해 발생 건수가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매년 1%씩 줄여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잡았다. 첫 계획인 만큼 후속 세부과제를 이행하는 과정

에서 목표치는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정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항목 수정·추가 등 기초자료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분석을 고도화한다.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만든다.

최근 실시된 2021년도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유형은 '넘어짐·부딪힘'(6937건)이 전체의 42.5%로 가장 많았다. '떨어짐'(4142건·25.4%), '기도 이물'(1590건·9.7%), '화상'(1122건·6.9%), '손발 끼임'(910건·5.6%), '치명적 손상'(81건·0.5%) 등이 뒤이었다.

성별과 연령별로 사고 유형은 달랐다. 만 0세일 때 남아와 여아의 사고 비율은 비슷했으나 만 2세부터는 활동량이 보다 많은 남아 비율이 60%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만 0세 사고의 대부분(92.2%)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안전사고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인 '치명적 손상'이 32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떨어짐 사고가 만 0~1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다가 2세에 급격히 감소했고, 넘어짐·부딪힘 사고는 걷기 시작하는 1세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만 3세는 야외활동이 늘어 실외 놀이터 사고가, 만 4세는 승용기구를 타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만 5세는 벌레 등에 물리거나 쏘이는 사고가 각각 영유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소방청은 또 영유아 사고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어린이 안전주간 설정 등을 통한 대국민 안전 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김재환기자

“내가 죽었다”...어머니 살해 후 자수한 40대 아들 구속영장

경찰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한 40대 아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40대)씨를 현행범체포했다.

조사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